쉼 터

신문지상의 광고문을 읽고

김 정 안(KIST)

이 지면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머리를 식히면서 쉬어가자는 의미로 배당된 지면인 것을……

오늘 나는 모 일간지를 펼쳐드는데 기존의 광고 문안과 아주 색다른 한 사람의 광고인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회한의 아쉬움인지를 구분 못할 정도의…… 그것도 4천만원 이상의 광고였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돈 많은 사람들이 신문 지상에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듯 자기의 부친 혹은 모친의 사후 어디에서 장례식을 치룰 예정이며, 장지는 '선영' 어디어디라는 광고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우리나라 교통 문화의 현주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었으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추모의 글이었다. 그 광고 문안을 읽고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나도 지금 고향에 계시는 모친 생각이 언뜻 떠올랐다. 그 광고 문안에서 말했듯이 '부모는 자식들의 효를 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내 뇌리를 때렸다. 나도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문안 인사라도 드려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밀레니움을 맞이할 태세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새 정부들어 IMF치하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득권을 못 가진 사람들은 또한 그들 나름대로 이 세상을 새로운 기득권 쟁탈을 위하여 전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21세기는 분명 기득권 쟁탈전에서 패하면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의 교통문화를 생각해 보자. 서울의 청계 고가에서는 비교적 교통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교통 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는 없어 보인다. 내 경험으로는……

그러나,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아니 시골로 가면 교통 법규 위반은? 아니 지키는 사람이 바보인 것을…… 그러니 초보운전자에 의해 아깝게도 노인이 우체국 앞 인도에서 차에 받쳐 돌아가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나는 요사이 밤 12시가 아니 밤 10시가 넘어 우리 연구소 (KIST) 정문을 차를 운전하고 나가기가 솔직히 겁이 난다. 왜냐구요? 간단한 얘기죠 뭐! 연구소 정문 바로 좌측 임업 연구원 정문에 연관된 교차로에서 90% 이상의 운전자는 교통 법규를 어기면서 다니고 있으니까요. 아무 죄의식도 없이…… 특히 당황스러울 때는 교통 신호를 어기고 달려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의 과속 질주에 나는 모골이 송연해질 수밖에 없지요! (잘못하다간 30년 먼저 가겠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통 신호를 어기고도 앞을 가로막으면 태연 자약하게 오히려 큰소리친다. 또한, 이곳 도로에 좌회전 표시와 직진 금지 표시가 된 차선에서 곧바로 직진을 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인데도 아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아니 당연해 한다). 그래서 나는 청량리 경찰서에 건의 아니 제안한 적이 있다. 그러나 대답 왈 걸작이었다. 산림청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으로 이렇게 새롭게 (?) 차선을 단장했다나? (불법을 조장하는 듯한 대답) 산림청이 대전청사로 이전한지 언젠데?!!!! 탁상 행정의 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러니 교통 신호체계가 엉망인 시골은 어떠하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나라가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니고 있는 정신 자세이다??!!!

나의 경험 두가지 !

첫 번째 경험 :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차를 구입하고 가족과 동양마켓을 가기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 하필 '러시아워' 였다. 3차선 중 웬일인지 1차선은 텅 비어있어 그 차선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뿔사! 그 차선은 좌회전 차선이었다 (그 길로 곧장 가면 나는 길을 모르는데……). 그래 교통신호 30미터 후방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옆 차선의 한 운전자가 자기 차를 약간 후진시키면서 자기 차 앞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정말 천만 다행이다 싶었다. 나는 목례로 고맙다고 하였더니 그 사람도 고개를 끄떡여 주었다. 분명 그 사람도

내가 차선을 잘못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듯 싶어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어떨까? 좌회전 차선 끝에서 푸른 신호에 바로 직진 차선으로 달려나가는 많은 운전자들 (영업용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대비가 된다.

두 번째 경험 :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추석명절에 겪었던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고향에서의 추석 성묘 후 귀성 도중 고속도로 상의 대전 터널 50 미터 후방에서의 일이었다. 많은 차량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데 갓길을 계속하여 달려와 터널 입구에서 끼어 들기를 계속하여 내가 가고 있는 차선의 차들은 꼼짝 못하게 되었다. 그래 나는 내 차선을 반쯤 비켜 갓길의 차 주행을 막아 버렸다. 마침 재수없게도 목사님 가족이 타고 있는 차량이었다. 그 뒤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가는 그랜저였다. 목사님이 길길이 날뛰시는 것을 보고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저속차량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왜 길을 막느냐'고 야단이었다. 그래 '저 앞에 터널이 보이시지 않느냐'고 했더니 저속차량길이라고 나의 멱살을 잡을 태세였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은 겁을 잔뜩 먹고 그냥 길을 비켜 주라고 야단이었다. 그런데 옆 1차선 차량의 운전자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고 비웃는 것 같은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뒤 그랜저 운전자는 차가 고장나서 빨리 가야 된다나? 그러나, 끝까지 버텨 내가 이긴 적이 있다. 지금은 고속도로 갓길 운행이면 10만원 범칙금에 30일 면허 정지라나? 그래서 요즈음은 갓길 운행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버스 전용차선을 달리는 웬 자가용 운전자들!!! 그래 우리 아이가 묻기를 '저 차는 버스 전용차선으로 가도 되는 허가받은 차인가요?' 그래 내가 대답하기를 '아마도 무지하게 바쁜 사람들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나의 이 마음을 우리 애들은 이해할까?

광고를 낸 그분 부친 부디 '극락왕생' 하셨으면…… 아차 실수를 하는 것 아닌지? 요즈음 조계종 분규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쉬어 갑시다. 천천히……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도 바쁘게 가야하는지? 기득권 잃었다고 굶기야 하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쉬어가자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지나 않았는지? 그러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새로운 곳으로의 진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가 한 말을 다시 되새겨 봄직하지 않을까요?

"All progress is initiated by challenging current conceptions, and executed by supplanting existing institutions"(진보는 기존 개념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되고 기존 제도를 밀어냄으로서 이뤄진다).

쉼 터 광 고

쉼터는 회원의 수필기사를 다루어 기술지 기사를 정독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휴식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한 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의 수필을 실었으면 합니다. 많은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 인 광 고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기술연구소"에서는 학술진흥재단지원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할 전임연구원을 모집합니다.

- 기　　간 : 1년 단위 계약(총 2~6년)
- 급　　여 : 180만원/월
- 전공분야 : 고분자 전해질, 생체고분자재료
- 모집인원 : 총 4명
- 문 의 처 : 화학공학과 이영관 교수 Tel : 0331) 290-7248,　Fax : 0331) 290-7272
  E-mail : yklee@yurim.skku.ac.kr